

기성회비 폐지에 마땅한 대안없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결… 최근 반환 명령 잇따라

정부,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 징수하도록 법안 개정 나서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대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1일 서울대를 포함한 13개 국·공립대학교 졸업생 4591명 대상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 학생 126명에게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소송 대상자인 서울대 학생 7명, 카이스트 학생 27명에게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서울대 기성회는 총 1억6218만원, 카이스트 기성회는 총 2억235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학생과 기성회간의 질긴 공방끝에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각 대학 기성회의 항소심에도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이 국가 측의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는 수업료대신 자율로 운영되는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사립대학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법원 측의 지속되는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도 대학 측이 기성회비를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사무국장들은 “법원이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명령을 내려도 현재 대학 내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지원은 줄어드는 실정에 대학에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파산 신청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 운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등록금의 평균 18%정도를 차지하던 수업료를 전면 개선해 통합 징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주대 또한 현재 7명의 학생이 기성회

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성회비 징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편법이 아닌 올바른 방향의 등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대학 운영에 관한 이해를 요구했다. 그러나 타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정부의 법안 개정과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균 사무국장은 “법원은 기성회비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하에 사용됐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놴”이라며 “결국 대학 스스로가 기성회비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매년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는데 법적 집착을 받는 수업료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수빈 기자

제47대 총학생회장에 ‘SO아라’ 원일권 당선

4357표 획득, 지지율 58.35%

‘소공녀’ 총여 찬성 67.6%로 당선

11월 18일 치뤄진 2014학년도 제4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SO아라’ 선거운동본부(정·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 부·현지훈 에너지공학과 3)가 당선됐다. 또 총여학생회에는 ‘소공녀’ 선거운동본부(정·홍은혜 전자공학과 3, 부·김수운 환경공학과 2)가 선출됐다.

총학생회는 선거 최종 투표 집계 결과 ‘SO아라’가 58.35%의 지지율인 총 4357표를 획득해 총 2992표(지지율 39.23%)를 받은 ‘신세계’에 1365표 앞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181표(2.42%)이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9410명 중 7467명이 투표해 작년 투표율(79.98%)과 비슷한 79.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원일권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우들과 학내 언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일만아라가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했다”며 “조심, 열심, 땀심을 항상 되새기며 총학생회장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2015학년도 제47대 총학생회에 ‘SO아라’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왼쪽) 총학생회 당선자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욱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단독출마한 ‘소공녀’가 전체 유권자 4539명 중 3481명(76.69%)이 참여한 가운데 총 2353표(지지율 67.6%)를 얻었다. 반대표는 1095표

(31.46%)이며 무효표는 33표(0.94%)이다.

홍은혜 총여학생회장 당선자는 “여학우뿐만이 아닌 일만아라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학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공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승균 기자

영어수업시연대회 C.T.E팀 최우수상

11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서

상호작용·IT 접목에서 높은 평가

제주대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사업단(단장 김익상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이 11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영어수업시연대회 (I am a Global Teacher: IG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C.T.E팀(팀장 조주영 초등실과교육전공 2)이 최우수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Look out for Geography팀(팀장 양재원 지리교육전공 2)은 GTU형 의제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대 참가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주대 참가팀은 다른 대학 팀보다 수업의 독창성과 완성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과 IT기술의 접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T.E팀은 ‘화산과 지진을 주제로 한 STEAM 교육’, Look out for Geography팀은 ‘동양과 서양의 생각차이’를 주제로 시연했다.

조주영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수업설

계와 영어수업에 대해 많이 배웠고 좋은 결과까지 받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교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의 글로벌 교사로서의 교육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경인교대·한국교원대 등 4개 GTU 지원사업단에서 각 2개 팀씩 참여했다. 부찬우 기자

‘양적연구로 논문작성하기’

12월 3일 글쓰기 워크숍 개최

기초교양교육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은 12월 3일 국제교류회관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방법론으로 논문작성하기’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1월 30일까지 기초교양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기초교육원 교양교육센터 ☎ 756-2056~7). 김해건 기자

학생생활관 동기특별개관

입주자 11월 30일까지 모집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애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이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계절수업기간(12월 26일~1월 16일)과 전체기간(12월 26일~2월 17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 수료 연구생, 한국어연수생, 국내·외 교류수학생 등이 해당된다.

입주우선순위는 현재 입주 중인 학생, 재학생, 교류수학생, 한국어연수생, 대학원 수료 연구생, 휴학생, 그 외 입주 신청자 순으로 선별된다.

입주 허가자는 12월 2일에 발표하며 생활관비 납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야 한다.

입주신청은 하영드림이(www.dreamy.jejunu.ac.kr)를 통해 하며 수료연구생의 경우 별도양식으로 이메일(jnudorm@jejunu.ac.kr)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학생생활관 ☎ 754-2251)

정현 기자

‘청춘, 만남과 도전’ 2014 학습페스티벌 개최

프리젠테이션 ‘TOP스타’ 대상

아라토론대회 ‘방구석’ 우승

기초교양교육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이 주최한 2014학습페스티벌이 11월 21일부터 이틀간 교양강의동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기 위해 열렸다. 21일 열린 제3회 JNU 프리젠테이션 페스티벌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다름이란?’ 다문화 사회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본선 대회가 열렸다.

발표력과 독창성, 내용 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TOP스타’ 팀(팀장 오다연 생활환경복지학부 4)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제5회 아라토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에 참가했다.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11월 25일 ‘2014 학습페스티벌’ 시상식이 접견실에서 열렸다.

결선에서는 총 6개의 논제 중 ‘우리는 꼭 취직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방구석’팀(팀장 양혁준 무역학과 3)과 ‘골판왕’팀(팀장 강소현 초등교육과 1)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대회 우승은 설득 방식에서 다양한 사례 제시와 일관적인 접근으로 상대팀을 공략한 ‘방구석’팀이 차지했다. 정현 기자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 변종철 지음 | 313페이지 | 18,000원 |

한 줄의 시는 과학의 숨결이며, 한 포기의 양배추는 과학의 흔적이며, 한 마리의 한치는 과학의 산물이며, 파도를 잉태하고 있는 바다는 과학의 보물단지이다.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일상생활에서 시 한 줄을 읽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양배추와 당근, 한 잔의 막걸리를 음미하면서 한치와 광어, 다양한 색깔에 취하면서 바다와 하늘을 품는 것이 건강한 99세를 누릴 수 있는 절경이다.

조명계획과 설계

| 오성보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빛은 공기나 물과 같이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리적 환경요소이다. 이러한 빛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해가 되는 물론 동식물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계획과 설계』는 조명이론을 중심으로 생태조명 계획에 대한 제주도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보고 노력했고,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건축공학, 산업 디자인 및 관광개발·경영 관련 학습자들의 기본 교과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윈드서핑

| 양명환·김덕진 지음 | 219페이지 | 13,000원 |

햇빛에 반짝이는 세일을 달고 나비처럼 산들산을 움직이다가도 바람을 만나면 하얀 꼬리와 포말을 일으키며 물 잔 제비처럼 빠르게 물위를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환상적인 스케이트링 선수의 동작과도 흡사하다. 바람의 힘으로 속도감에 도전하는 스포츠, 바로 윈드서핑이다.

『윈드서핑』은 윈드서핑의 기초이론과 기술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서적이다.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

| 김태일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생태도시, 안전도시, 녹색도시,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 곳곳에는 넓은 도로가 건설되고 도서관과 미술관, 아트센터가 개관되고 수많은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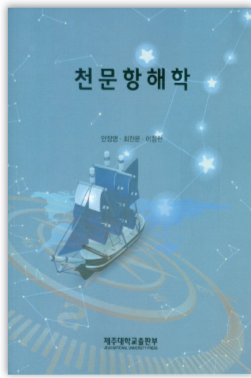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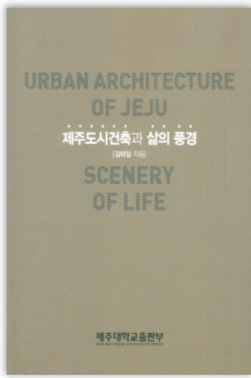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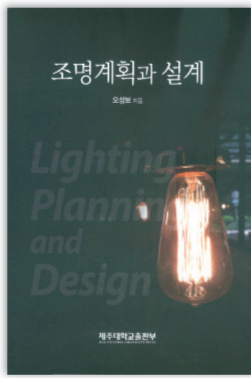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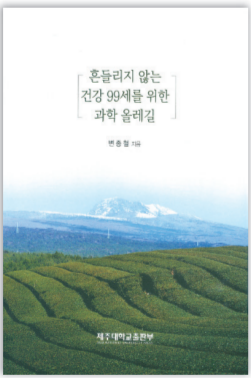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통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를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도시건축의 질을 높여야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 물리적 환경과 삶이 녹아 스며든 아름다운 풍경이 형성된다는 취지이다.

천문항해학

| 안장영·최찬문·이창현 지음 | 338페이지 | 15,000원 |

현재 선박에서 위치를 측정할 때 연안항해와 대양항해에 관계없이 레이더와 GPS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문항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문항해학』은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요소를 계산함으로써 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을뿐더러 위치 산출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이용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사설

국립대 기성회비 논란, 국가가 적극 나서야

기성회비 제도는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법률이 아닌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각 대학이 연구비와 시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에 돈을 더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수업료 항목은 대학들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반면 기성회비는 징수와 관리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사립대학은 이후 기성회비를 1999년 폐지했으나 국립대는 여전히 존속시켰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업료보다 훨씬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411만4500원 중 수업료는 105만2100원으로 20%대에 불과하다. 반면 기성회비는 306만2400원으로 74.4%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주대 사회계열기준 2014 학년도 등록금 328만원에서 수업료는 74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기성회비는 무려 253만6000원이다. 77%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이후 전국에서 반한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4591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대학들은 압박한 대법원 판결도 1·2심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당장 등록금의 80%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다. 전체 직원의 20~30%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근거도 사라진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와 시설비 외에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그동안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추진해온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학생 장학금 편성도 불투명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징수하고 이를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공립대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 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국립대학 재정운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고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국회가 조속히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학생회를 희망하며

학생회 선거가 지난주에 치러졌다. 다른 대학들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저조하여 재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학생회 선거에 대학본부가 개입했다 하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부정선거로 탄핵을 받기도 하는 등 잡음이 크다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지난해 제주대신문 기획기사로 학생회 선거의 급권선거, 인맥선거, 스폰서 선거의 문제점을 다룬 바 있을 만큼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학생회 선거에서 그 문제점이 얼마만큼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충분한 자성의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운동원들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 밥을 지어먹고, 선거에 쓰이는 의복의 대여나 반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책을 가장 많이 본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아 급권선거, 인맥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학내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소신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상대 후보 진영으로부터 인맥을 근거로 여러 차례 화우 전화를 걸어왔으나 정책을 보고 선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끝내 접지 않았다는 새내기들의 발언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좁은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유권자로서의 개개인의 소신을 포기해온 것에 대해 반성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모두가 우리 대학 사회의 선거 문화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이는 것들이었다.

어떤 후보자들은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언제라도 쓴소리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여 청년들의 순수함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상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하지 않는가. 하물며 공약이라는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드물고 학생, 대학본부, 환경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조정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마음을 다잡고 공약실천에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정책선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이 공약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자리를 일정기간마다 마련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득이하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의 경우도 당선자들이 해온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살살해지는 계절, 이른 출근길이나 늦은 퇴근길에 학교 주요 도로변에 늘어서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후보유세를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선거철이 도래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선거 운동을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정책선거 문화를 키워나가려는 노력에 더하여 다음에 치를 학내선거에서는 선거 운동 방식에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보태는 기원을 마련하길 제안한다.

형식적 기록에 그친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평가

교양동 장애인화장실 손잡이 반대로 설치돼 불편

장애학생지원센터 “현장 확인 후 바로 시정하겠다”

제주대가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조사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장애학생들의 불편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대는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조사에서 교수·학습과 시설·설비 영역에서 최우수, 선발 영역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작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돼 있거나 공간이 부족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현태 (사회학과 3) 장애인인권대 책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지만 불편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교양강의동 장애인 화장실의 손잡이는 규정과 정반대로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본관과 학생회관에 마련된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규정상 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본관의 경우 안쪽으로 문이 개폐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문을 닫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건물마다 설치돼 있는 장애인 경사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과학대학 서쪽 경사로의 경우 출입문과 평행으로 배치돼 있다.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우측으로 휠체어를 돌려야 한다. 하지만 경사로와 자동문의 폭이 모두 좁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사회과학대학 서쪽 출입구에는 장애인 경사로가 수직으로 설치돼 휠체어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

따른다.

한 장애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승강기를 탈 경우 공간이 없어 다음 차례를 기다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다른 학생들의 이용에 의해 고장이 잦다.

현능주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관은 “사회과학대학 서쪽 경사로의 폭

을 넓히면 인도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화장실 문제는 현장 확인 후에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학생의 복지는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현 기자

“학점은 내가 관리한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 구축

오는 12월 학사과 최종점검 통해 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

수강·졸업 등 이수 학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

학생 학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이 12월말 구축된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은 △학적 기본정보 △편입학점 △교양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타학점이수 △취득학점이수 등을 자세히 분류해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알기 위해 학과사무실을 찾아가 과목이수표를

받았다. 하지만 과목이수표는 학과 조교와 학생이 직접 계산해야 하므로 오차의 위험성을 띄고 있다.

자기학점관리시스템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현재 학생이 이수한 학점이 모두 계산돼 있어 정확한 학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학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다. 또 학점이 수와 관련해 학과사무실 방문의 빈도가 낮아짐으로써 학과 조교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교내 모든 학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학과 조교들은 시스템의 오류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학과명이 변경됐거나 전공기존학점이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학사과에서 12월부터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정 학사과 실무관은 “본인의 학점이수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강과 졸업 등 이수 학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가능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승규 기자

양채류사업단 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열려

제주대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수혜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양채류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활동을 벌였다.

양채류 RIS사업단은 홍보관을 운영해 제주양배추진액, 제주농장야채수, 제주친환경야채피클(브로콜리,

양배추, 적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제주브로콜리발효초장, 브로콜리발효액, 가막갈떡밥(양배추), 제주양배추화장품 등 제주산 양채류를 활용한 제주도내 기업 제품의 체험(시식, 시음)행사와 전시판매, NS홈쇼핑, 아웃백 등 국내 유통 바이어들과 상담을 실시했다.

바이어들과의 상담에선 H백화점, G백화점 등에서 제주친환경 야채피클제품의 입점을 희망했고 한 홈쇼핑 업체에서는 제주농장야채수 제품을

개인상담 프로그램 안내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윤 통신공학과 교수)는 심리상담전문가와 함께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가와 학교생활, 대인관계, 성격 및 행동, 진로 등 일상생활이나 장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 14시~17시까지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겨울방학 IT특강 안내

정보통신원(원장 이상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겨울방학 IT특강 참가자를 모집한다.

특강은 MOS Master 2010, 컴퓨터활용 1급, GTQ 포토샵 CS5, 정보관리사 ERP 인사 2급 등이 진행되며 각 40명씩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주)강사와 사람들 홈페이지(www.i-people.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허은주 강사(☎010-6320-4539) 박소연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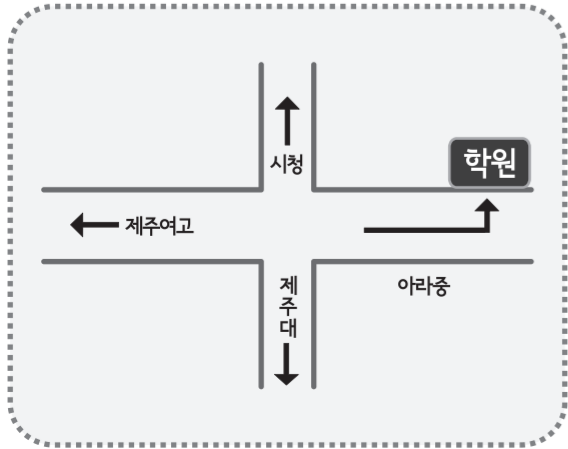
2015학년도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과정	학과	모집인원		비고
		내국인	외국인	
석사학위	스토리텔링학과	23명	약간명	학과별 선발인원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심리치료학과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전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학과의 정원 외로 약간명을 별도로 선발한다.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및 일시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접수	2014. 11. 24(월)~11. 28(금) 09:00~18:00	사회교육대학원 행정실(사라캠퍼스)	입학지원서 및 면접고사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http://gsse.jejuu.ac.kr)	
수험표 교부	“	“	접수와 동시에 교부	
면접고사	2014. 12. 13(토) 16:00	교육대학 (사라캠퍼스 내 시험장)		
합격자 발표	2014. 12. 26(금) 14:00 예정	사회교육대학원 홈페이지 (http://gsse.jejuu.ac.kr)	개별통지 안함	
합격자 등록	2015. 2월 초순경	지정 금융기관	추후 공지	
지 원 자 격				
1. 국내·외 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인 자				
2.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지방학과는 출신대학의 학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 문의=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행정실(064-754-4731, 4769).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통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9일(금) 16: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 (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출… 경상대학 ‘내게기대’ 당선

11월 18일 각 단과대학에서 투표 진행

자연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보궐선거 진행 예정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11월 18일에 열린 가운데 자연과학대학과 예술디자인대학은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추후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은 26일에 선거를 치른다.

다음은 단과대학 선거결과이다. △인문대학은 ‘사람사이’ (정-고수용 국어국문학과 2, 부-최가를 일어일문학과 2) 후보가 총 유권자 1157명 중 889명(76.83%)이 투표, 찬성 641표(72.1%), 반대 234표(26.3%), 무효 14표(1.6%)로 당선됐다.

△사회과학대학은 ‘청춘’ (정-문준영 언론홍보학과 2, 부-장영하 정치외교학과 2) 후보가 총 유권자 801명 중 523명(65.29%)이 투표, 찬성 386표(73.8%), 반대 117표(22.4%), 무효 20표(3.8%)로 당선됐다.

△경상대학은 ‘내게기대’ (정-유창민 경제학과 3, 부-김재홍 회계학과 2) 후보가 유권자 1834명 중 1273명(69.41%)가 투표, 644명(50.8%)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577표(45.3%)에 그친 함께하는 (정-강승봉 경영학과 3, 부-양재민 관광개발학과 3)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52표(4.1%)를 기록했다.

△사범대학은 ‘사심가득’ (정-양해찬 국어교육과 2, 부-이경진 영어교육과 2) 후보가 총유권자 551명 중 475명(85.2%)이 투표, 찬성 404표(85%), 반대 68표(14.3%), 무효 3표(0.7%)로 당선됐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일생일대’ (정-강경원 산업응용경제학과 3, 부-강승찬 원예환경전공 3) 후보가 총유권자 558명 중 448명(80.2%)이 투표, 찬성 342표(76.4%), 반대 105표(23.4%), 무효 1표(0.3%)로 당선됐다.

△해양과학대학은 ‘해당사항’ (정-김승용 환경공학과 3, 부-장성인 토목공학과 2) 후보가 910명 중 749명(82.3%)이 투표, 찬성 667표(89.05%), 반대 76표(10.15%), 무효 6표(0.8%)로 당선됐다.



△공과대학은 ‘어울’ (정-현미수 에너지공학과 4, 부-김성용 전자공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1354명 중 1077명(79.65%)이 투표, 찬성 895표(83.1%), 반대 173표(16.1%), 무효 9표(0.8%)로 당선됐다. △수의과대학은 ‘VETAMIN’ (정-추승완 수의학과 1, 부-김민진 수의학과 1) 후보가 총유권자 245명 중 198명(80.81%)이 투표, 찬성 170표(85.9%), 반대 27표(13.6%), 무효 1표(0.5%)로 당선됐다. △간호대학은 ‘함께간대’ (정-조성우 간호학과 2, 부-김지은 간호학과 2) 후보가 총유권자 265명 중 239명(90.18%)이 투표, 찬성 157표(65.7%), 반대 82표(34.3%)로 무효표 없이 당선됐다. △야간강좌부는 ‘청운’ (정-김건희 야간행정학과 2, 부-김지연 야간행정학과 3) 후보가 총유권자 147명 중 74명(50.3%)이 투표, 찬성 58표(78.38%), 반대 16표(21.62%)로 당선됐다. 유주연 기자

‘2014 대학 이러닝 컨퍼런스’ 행사 개최

11월 18일부터 3일간

130여개 대학·기관 참여

전국대학 이러닝지원센터 중앙운영본부(본부장 이상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11월 18일부터 3일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14 대학 이러닝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130여개 대학·기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교육부의 대학이러닝 발전방향, 한국형 무크(MOOC) △이러닝과 저작권 △장병 자기개발 정책 소개 △스마트 러닝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대학 이러닝 학점교류에 따른 다양한 학습사례연구와 국제화 전략기반을 모색하고 대학 이러닝 활성화를



11월 18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14 대학 이러닝 컨퍼런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제주대)는 지난 2003년 정부의 ‘대학 정보화 활성화 방안’ 정책에 따라 전

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2011년에는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 중앙운영본부로 선정돼 대학이러닝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찬우 기자

씨그랜트센터-바다환경보전협의회 협약 체결

11월 17일 제주대에서

제주대 씨그랜트센터(센터장 이병걸 토목공학과 교수)와 제주바다환경보전협의회(회장 한광수)는 11월 17일 제주대에서 ‘해양환경 보전·관리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는 제주 해양산업 발전 및 해양환경 보전·관리 사업에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연안환경 정화사업 △해양환경 진단 △해양환경 개선 연구 및 사업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의 상호교환 △지식 정보 관련 심포지엄 공동개최 △연구

개발을 위한 자원 공동 활용 및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걸 센터장은 “그동안 학교가 어민과 해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

원이 부족했다”며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어민들과 해양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서윤 기자

RIS사업단 ‘2014 인터푸드 박람회’ 참가

제주조릿대 RIS사업단(단장 김세제 생물학과 교수)과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이용완 무역학과 교수)은 11월 12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14 인터푸드 박람회’에 함께 참가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벌였다.

앞서 양 사업단은 10월 28일 제주

조릿대 제품의 해외시장진출, 전문인력 조기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사업단은 박람회에서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유망 제품을 선정하는 등 제주조릿대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전지민 기자

GTEP, 2014 홍콩 미용전시박람회 참가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상담전수 200건 달성

제주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단장 이용완 무역학과 교수)은 11월 12일부터 이틀간 ‘홍콩 코스모프로프 2014 미용전시박람회’에 참가해 제주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현장 상품 판매 활동을 했다.

홍콩 코스모프로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총 42개국, 1780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GTEP 요원들은 도내 6개 협력업

체 기업(서연, 유씨엘, 제이어스,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프림제주, 파라제주)과 함께 참가했다. 이날 외국 바이어와 상담 및 시장조사, 현장 판매, 마케팅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GTEP는 세계 각국에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을 널리 알렸다.

사업단은 외국 바이어들과의 성공적인 수출활동으로 총 상담전수 200건을 달성했다. 또한 한화 약 680만 원의 우수한 판매 실적을 냈다.

이용완 단장은 “GTEP 전문가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 바이어들과의 능숙한 업무처리를 통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GTEP이 향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EP 요원들은 박람회 종료 후에도 가계약 상담 및 바이어 리스트 정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서윤 기자

두드림 심리검사 3일 실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정순여 회계학과 교수)에서 운영하는 두드림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12월 3일 진행된다.

참여는 학년과 남녀 구분없이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리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편한 시간에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754-4451) 강서윤 기자

문화조형디자인 전공

제26회 과제 전시회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학부장 오창운 교수)의 제26회 과제전시회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과제전시회는 섬유·금속·제품·세라믹 등 다양한 전공 교과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행사다.

오창운(문화조형디자인 전공)교수는 “이번 행사는 각자의 꿈을 향해 조금씩 미래로 달려가는 소중한 모습”이라며 “젊음의 가능성과 문화조형디자인전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조형디자인전공은 올해 25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서 특선, HIJK(한양대, 인하대, 제주대, 강원대)융합캠프에서 대상,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에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박소연 기자

학내 배달 오토바이가 무법지대 만든다

학생들 안전에 위협대

제한속도 규정 지키지 않아

학내 배달 오토바이가 제한속도(20km/h)를 잘 지키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오토바이는 육안으로 보기에 도 20km/h가 훨씬 넘는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후문의 주요 배달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내 규정속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규정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후문 음식점 업주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내에서는 이륜자전거와 관련해 학내 교통법이 없으며, 규정속도를 넘는 운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따로 마련한 규제도 없다. 속도와 관련해 단속담당 관리인을 마련하는 등 과속주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부족한 상태이다.

김주현(사학과 1)씨는 “보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느껴져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측에서 따로 경고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교내 제한속도(20km/h)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학내의 관리요원을 통해 차량관리와 주차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배달업체의 속도제한과 관련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배달음식점으로부터 과속제한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학내 규정속도를 지키고 학우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과속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강대와 포항공대 등 타 대학의 경우 학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륜자전거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 서강대는 학생 및 교직원 오토바이 보관소에 주차 후 교내 출입을 권장하며 1차 적발시 스티

커 부착 또는 경고록 보내며 추가로 적발될 시에는 교내 출입이 금지된다.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안전운행 기준을 바탕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발점을 부과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황경수 행정학과 교수는 “이륜자동차와 관련해 학내의 자체적인 운영 룰이 없기 때문에 학내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속도제한 과속방지턱을 도로의 양측 끝까지 만들어 오토바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저감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재일제주인의 삶을 보여준다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신재경 지음 | 보고서 | 1만3000원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리도 많은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의 저자 신재경 전 성미(成美)대학 교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다.

재일동포의 역사는 멸시와 차별의 역사이다.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남아 역사에 하나의 족적을 남긴 것이 바로 재일동포이다. 저자는 그들이 어떻게 재일동포가 됐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들을



간 사람들, 서로 다른 이유로 일본을

갔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일본이란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아닌 또 다른 시련일 뿐이었다. 저자는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그들의 고난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그들은 군락을 이루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명목을 이어갔다. 그 결과 현재 약 60만 명,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까지 다 합쳐 100만 명에 이르렀고 상계, 스포츠계, 연예계를 걸쳐 사회 대다수에 자리 잡게 됐다.

‘역사 속에 오늘의 재일동포, 그 모습을 그린 책’이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이 결코 허투른 말이 아닌 만큼 필자는 재일동포의 과거와 현재를 세밀하게 그려냈다. 저자는 그 동안 재일동포에 무관심했던 우리들에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남겨줬다.

부찬우 기자

사람들	추계공동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한국체육학회 우수논문상	대학도서관 공모전 최우수상	한국주거학회 우수논문상
김형길 교수·강태훈 대학원생	김관철 체육진흥센터 실무관	오안녕 중앙도서관 실무관	백지숙(건축학부 석사) 원생	
김형길(경영학과) 교수와 강태훈(경영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1월 14일부터 이틀간 경상대학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전 자상거래학회와 한국정보전략학회가 ‘창조경제와 스마트 ICT 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임관철(체육진흥센터) 실무관은 10월 27일부터 이틀간 제주대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오안녕(중앙도서관 자료관리과) 실무관이 11월 1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최하는 대학도서관 운영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지숙(건축학부 석사) 대학원생이 11월 15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거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모바일게임의 삶증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다.	논문 제목은 ‘육상운동 및 필라테스 운동이 척추측만증 여자 중학생의 Cobb’s angle과 체력, 허리근육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공모전은 함께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씨는 ‘대학도서관에서 만나는 사서’를 출품했다. 프로그램은 제주지역에 문헌정보학과가 없다는 점에서 생각해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사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수상한 논문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 교수님의 관심과 격려,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을 통해 모바일게임 개발자들에게 사용자들이 삶증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해 보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현재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엄청난 잠재 시장을 소유한 중국을 공략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임 실무관은 “제주대 여자 육상부 감독이라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체육학부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우리니라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일 사서 직업체험은 사서에 대한 소개와 수서담당사서 체험, 전산담당사서 체험 등으로 이뤄졌으며 여름방학기간이 7·8월에 총 3회 운영했다.	백씨는 “기존의 연구에 작은 벽돌 하나를 얹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논문이 학술발표대회에서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뿌듯하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공모하게 됐다”며 “수상에 대한 기쁨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도서관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MIS, 마케팅·무역·전자상거래·물류·관광 분야 등 교수와 실무자,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83명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학술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이 선정됐다.	한편 제52회 한국체육학회학술발표회는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을 기념해 ‘스포츠가 도시를 바꾼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 실무관은 “우리대학 중앙도서관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공모하게 됐다”며 “수상에 대한 기쁨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도서관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백 씨는 지난 2012년 ‘대한건축학회’, 2013년 ‘한국주거학회’에 이어 3회 연속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보라 기자	김보라 기자	김보라 기자	김보라 기자	

아열대 농업과 생명공학이 만나 융합기술이 영근다

< Subtropical Agriculture >

< Biotechnology >

< Convergence Technology >

대학특성화(CK)사업단 < 4·끝 >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

대학교구조개혁에 따른 대학특성화(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에 제주대는 4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5년간 180억(연 36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각 사업단의 목표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개 학부(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중 5개 전공(응용생명공학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원예환경전공, 식물자원환경전공)과 2개 학과(산업응용경제학과, 식품생명공학과)의 37명 교수와 706명의 참여학생(생명공학부 280명, 생물산업학부 209명, 식품생명공학과 114명, 산업응용경제학과 101명, 동물자원학과 1명, 동물자원전공 1명)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유연한 교육학적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제주형 골드시드 산업·아열대 식품소재 산업 등의 중점추진 분야에 힘써 제주형 농생명산업 활용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받는 혜택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특성화 Up Go 장학프로그램 △특성화 Up Go 교육프로그램 등 크게 두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성과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참여학과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업무보조 장학금과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도와 각 프로그램 참여결과를 평가해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일리지 장학금이 있다. 또한 페스티벌 참여 팀을 대상으로 발표 등에 대한 우수결과물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특성화 페스티벌 우수장학금과 사업단에서 지원한 교육프로그램의 학업성취 향상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

하는 특성화 역량 향상도 우수 장학금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업단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이기만 해도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성과 교육프로그램은 교수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졸업 공동책임지도교수제도 운영과 더불어 기업요구형 교육프로그램 모듈 교과목 운영관리를 하는 전공능력강화 교과목이 준비돼 있다.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외국어관련 교육 프로그램인 외국어역량 지원은 참여학생들의 어학적인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과 전공 졸업생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리콜교육 지원사업이 마련돼있다. 이는 전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A/S’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시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사업단은 학생들의 전공 관련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기초교육, 심지어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썼다. 전공 특성상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단의 교육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기초교육은 학생들의 기초능력 평가를 토대로 보충강좌를 제공하거나 특성과 사업 맞춤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1:1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산업체(연구소)재직 전문가 주체의 특강과 세미나, 전공관련 자격증 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사회적 역량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을 방안으로 하고있다. 인성제 시행을 통해 봉사교육과 활동을 의무화 하고, 지역내 고아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등 취약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의 홍보 동영상에 나타나 있다.

◇사업단 참여 학생들의 의견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각종 혜택중에서도 장학금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에 만족스러워 했다.

김태승(응용생명공학전공 3)씨는 “CK 사업단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많은 도움이 된다. 업무보조 장학금을 비롯한 페스티벌 결과물 시상금,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 수강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하게 되는 것도 뛰어난 혜택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취업·진학 관련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나 각종 실험·전공공부를 하고싶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어 목표로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돼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에 큰 의의가 생긴다”고 했다.

이정훈(분자생명공학전공 3)씨는 “CK 사업단의 학생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많이 놀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외국어학습, 교환학생, 공모전,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으로서 사업단의 각종 혜택을 1년 남짓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CK사업단을 알게돼 학습·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혜택을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훌륭한 인재배출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업단의 향후 과제

사업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과제도 남아 있다. 이들은 참여학과 전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부교육의 내실화와 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특성과 지원시설과의 협력을 계획중이다. 이에 지원시설 활용도 향상에 의한 교육강화와 사업단 자체에서의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교육프로그램, 시설환경개선, 인력지원 등)을 통한 특성과 학부교육의 취입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7개 참여학과와 각 학생들의 전공역량에 살리고,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 양성을 최종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강수빈 기자

인터뷰 이동선(응용생명공학전공 교수) 사업단장

“의미있는 선택을 위한 기회제공 할것”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의 역할은.

“사업단은 제주대의 특성화 분야인 아열대생물산업 분야와 제주 지역 전략 산업인 청정헬스푸드, 생명융합식품 분야의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하는것이 사업단의 역할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I)으로 선정된 배경은.

“제주도는 아열대생물산업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지정학적으로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사업단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과대학의 식품생명공학, 생명자원과학대학간의 학제간 융합으로 IT-BT 융복합 학문 분야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로 사업단을 알게돼 학습·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혜택을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훌륭한 인재배출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업단만의 장점은.

“타 CK 사업단은 한 개 단과대학에 소속돼있는 학과를 지원해주는 반면, 우리 사업단의 경우 생명자원과학대학 6개학과(동물생명공학전공,분자생명공학전공,응용생명공학전공)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를 포함한 총 7개 학과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학과의 전공 특성을 살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순환농업연계전공, 아열대식품소재산업 연계전공, 종자산업 연계전공 등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단이 원하는 인재상은.

“우리 사업단은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아열대 농생명 융복합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한 학부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 학문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역량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해 우리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여학과 재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성취의식, 협동성과 조직 적응력, 도덕성과 바른가치관, 창의성, 인성, 리더십 등을 고루 갖춘 21세기 글로벌 시대 뉴리더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장품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란 말을 했다.

삶이란 늘 C(choice)의 연속인데, 우리 학교 재학생들 또한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도 항상 또 다른 C(chance)가 있다.

사업단은 우리 학교 재학생들의 아열대 생물산업, 청정헬스푸드, 생명융합식품 분야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C(chance)를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의미있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C(chance)를 찾으며 응원할 것이다.”

김하윤 기자



관점을 바꾸면 세상도 달리 보인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오 종 철 / 소통대이너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 ‘세상과의 소통’을 잠시 끊고 ‘내 역할과의 소통’에 집중해 봐야 한다”

◇누구나 역전을 꿈꿀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이 할 수 있는 개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무명개그맨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바로 사람들에게 꿈과 목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동시에 숨겨진 열정을 끌어내는 자기계발 강사가 되는 것이었다. 개그맨은 남을 웃기는 직업이지만 세상에 웃을 일을 만드는 것 또한 개그맨의 몫이란 걸 깨달았다. 바로 ‘소통대이너’라는 다섯 글자를 브랜드로 만들었다. 반전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대기업부터 정부부처까지 강연을 요청했다. 1년에 100회 개그 연단에 오르는 연예인 출신 자기계발 강사 섭외 1순위가 됐다.

요즘의 청춘들은 무슨 자격증, 무슨 점수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한다. 내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하지 않고 스펙만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개그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소리과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국제교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12월 9일까지 모두 12개의 강좌가 마련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험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작은 가게의 성공 비법

이 랑 주 / 한국VMD협동조합 이사장

나의 직업은 ‘비주얼 전문가’다. 또 VMD연구소와 VMD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VMD 희망트랙’, ‘나전사(나누는 전통시장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VMD(Visual Merchandising & Display)는 상품 기획부터 매장 인테리어, 진열 방식, 서빙 등 매장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매장 환경 컨설팅을 받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상인들은 매출신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로 생선을 직선으로 진열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진열해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이고 한 매장은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물고기가 헤엄칠 때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진열하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비주얼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인들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이 일을 하기 전에 10여년간 유명 백화점 여러 곳에서 디스플레이 업무를 담당하다 어느날 매장환경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시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6년 사표를 던지고 전통시장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전통시장 비주얼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컨설팅과 강의 의뢰가 쏟아졌다. 그러던 중 해외로 떠났다. 외국의 전통시장을 보고 우리 전통시장이 나아가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1년 동안 40개국 150여개 전통시장을 찾아다녔다.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은 그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시장이 나아가 할 길도 여기에서 보았다.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나치게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시설현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 그와 똑같이 되려하기 보단 탁월한 경쟁력으로 대체가능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

대화가 전통시장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을 하려면 시장에서만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처럼 만들기 보다는 전통시장만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에서 손님이 모이는 집은 따로 있었다. 바로 ‘소소한 파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들이었다. 폴란드에는 양파피클에 파프리카와 후추를 이용해 웃는 얼굴을 만든 ‘스마일 피클’이, 일본에는 한 입 크기의 평범한 타코야키가 아닌 야구공 크기의 타코야키를 파는 가게가 소소한 파괴로 손님들을 끌고 있었다. 독일 뮌헨의 빅투알리엔 시장에는 시장 중앙에 100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다. 한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다음 상인은 반드시 기존 품목으로 장사를 해야 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 있어야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의 이

익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몸치자 200~300년을 사랑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 매장만의 전통, 그 시장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제대로 전통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콘텐츠가 좋으면 손님들은 저절로 오게 만드는 게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셈이다.

◇많은 걸 알게 해주는 새로운 경험

핀란드 헬싱키 하카니에미마켓에는 ‘우리 옆집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라는 팻말이 있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지 누군가를 특정해서 경쟁하는 것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 그와 똑같이 되려하기 보다는 탁월한 경쟁력으로 대체가능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 영어 몇 점, 봉사점수 몇 점 이런 스펙들만 갖고 있다면 ‘80점짜리’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대체가능하다. 영어를 할 거라면 이근철 강사처럼, 봉사를 한다면 여행가 한비야처럼 해야 한다. 탁월함은 경쟁하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낯선 세로로 살아내고, 파괴의 달인이 돼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이런 자신만의 강점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 고객 연봉을 뒤로 하고 시장 할머니, 청년기업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 사실 예전에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시장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을 다니다 한 할머니를 알게 됐다. 1년에 약 3일을 쓴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30년 넘게 해오신 거다. 나보다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자신의 강점을 타인의 아픔과 불편함을 들여다보는 데 써보아라. 그게 곧 대박상품이다.

정용복 팀장

전파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내는 탐사레이더 기술

학술기고 땅속을 투시하는 레이더



현승엽
통신공학과 교수

누구나 한 번쯤은 레이더라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레이더 기술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공항에는 주변 하늘을 날아가는 각종 비행기의 위치를 찾아내어 이착륙 지시에 활용하는 항공관제레이더(air traffic control radar)가 있고, 매일 뉴스의 마지막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비구름 영상은 기상레이더(weather radar)로 획득한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과속 단속을 위해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스피드 건 레이더(speed gun radar)를 비롯하여 최근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인접한 다른 차량을 감지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더(vehicle anti-collision radar) 등이 있다.

그렇다면, 레이더는 어떻게 물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레이더는 전자기파(電磁氣波: electromagnetic wave) 중에서 전파(電波: radio wave) 영역에 해당하는 신호(信號: signal)를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는 공간영역으로 보내고,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의 크기 변화와 도달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하여 물체에 대한 존재 유무와 위치 정보를 원격으로 알아낸다. 그래서, 레이더는 전파로 ‘무선탐지와 거리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고 하며, 약자로 ‘radar’라고 부르는 것이다.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 비행기의 침투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군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1940년대부터 민간용으로 해상, 항공, 기상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선박, 비행기, 비구름, 위성 등에 대한 위치,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레이더의 기술을 이용하여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한 것이 지하탐사레이더(GPR: ground-penetrating radar)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지하탐사레이더의 원리와 응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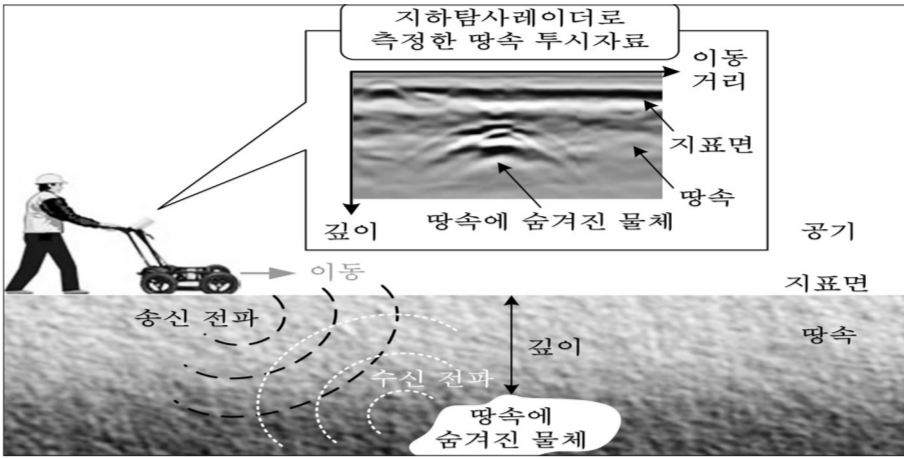
◇지하탐사레이더 원리

전자기파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

수(周波數: frequency)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낮은 전자기파는 물질 내부로 잘 투과되는 성질이 강하고, 반대로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물질 내부로 투과되지 못한 채 거의 대부분이 물질 표면에서 반사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의 예로 빛이 있다. 빛의 주파수는 수백 THz(테라헤르츠: 1초당 1조번 진동하는 단위)로서 매우 높아서 지표면에서 반사된 빛만 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땅속으로는 빛이 투과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눈으로 땅속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주파수를 빛보다 좀 더 낮추어 수십 ~ 수천 MHz(메가헤르츠: 1초 당 1백만번 진동하는 단위)의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전파 신호를 땅속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MHz 대역의 전파 신호는 땅속의 수 cm ~ 수십 m까지 전파가 투과될 수 있고, 땅속에 숨겨진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의 크기 변화와 도달 시간을 측정 및 분석하면 땅속을 투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지하탐사레이더이다.

지하탐사레이더 시스템(system)은 송신기(送信機: transmitter)에서 생성한 전파 신호를 송신안테나를 통해서 땅속으로 보내고, 땅속에서 돌아온 신호를 수신안테나나 잡아서 수신기(受信機: receiver)에서 데이터로 획득하는 것이다. 송수신안테나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측정한 수신신호를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영상으로 표시하면 땅의 특성과 차이가 있는 물체에 의한 패턴(pattern)이 국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물체의 존재 유무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탐사레이더는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지표면레이더(surface radar)와 시추공레이더(borehole radar)가 있다.

지표면레이더는 레이더 시스템 전체를 카트(cart)와 같은 이동수단에 장착하여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신호의 송수신을 반복하여 수 m이내의 땅속을 투시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시추공레이더는 수십 m 이상의 깊은 땅속을 탐사하기 위해서 지름이 약 수십 cm에 해당하는 구멍인 시추공을 깊은 방향으로 뚫고, 송수신안테나를 시추공에 삽입한 후 깊이 방향을 따라 안테나를 이동시키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땅속을 투시한다. 지하탐사레이더 시스템의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탐사대상이 되는 땅의 특성을 우선 잘 알아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레이더 시스템 각부에 해당하는 송신기, 송신안테나, 수신안테나, 수신기와 같은 하드웨어 설계를 비롯하여 측정한 수신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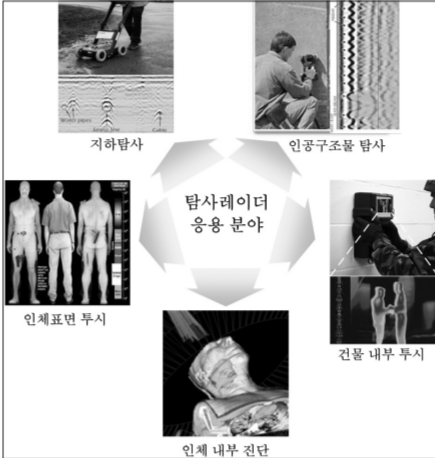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땅속에서 되돌아온 전파 신호에는 불필요한 시스템 잡음(system noise)과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된 신호인 클러터(clutter) 성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체의 신호보다 매우 크고,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잡음과 클러터로부터 물체를 구별해 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잡음과 클러터를 충분히 제거해야만 원하는 물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하탐사레이더 시스템의 내부 잡음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동일 위치에서 여러 번에 걸쳐 획득한 수신신호들에 대해 평균을 취하면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인 클러터는 크게 3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테나 자체에 의한 클러터(antenna clutter), 지표면 반사에 의한 클러터(surface reflection clutter),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subsurface inhomogeneity clutter)가 있다. 안테나 클러터는 안테나 자체를 충분히 광대역(wideband) 특성을 만족하도록 안테나 구조를 설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표면 반사 클러터는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간의 거리를 적절하게 띄우거나 두 안테나 사이에 전자기파 흡수체(electromagnetic absorber)의 삽입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파가 보는 땅의 특성은 위치마다 심하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도 깊이별, 수분함량별로 크게 변하는 비균일성에 의해 불규칙적인 분포를 갖고 있어서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는 제거하기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땅속의 비균일성에 의한 클러터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지하탐사레이더의 탐지 성능을 좌우한다. 이는 지하탐사레이더로 땅속에 숨겨진 모르는 물체를 찾는다는 것은 물체 이외의 땅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땅속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여 지하탐사레이더의 수신 신호에 잘 반영할 수목 물체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 및 향후 발전 방향원리

빛의 주파수는 아주 높아서 지표면의 상태를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땅속을 투시할



전파로 땅속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내는 지하탐사레이더의 원리(위)와 최근 탐사레이더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아래)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지하탐사레이더는 빛보다 매우 낮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땅속을 투시할 수는 있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직접 땅을 파헤치지 않아도 땅속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투시할 수는 있어서 비파괴 검사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수용으로 땅속에 매설된 수도관, 가스관, 통신선로 등의 매설물 탐지와 최근 도로가 갑자기 한발되는 원인인 싱크홀(sinkhole)의 사전 탐지, 군용으로 불발탄과 지뢰의 탐지, 적군에 의해 침투용으로 몰래 굴착한 땅굴의 조기 탐지 등에 이용된다. 이외에도 고대 유적탐사, 지하자원탐사, 행정탐사 등에 이르기까지 지하탐사레이더는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 지하탐사레이더의 응용은 탐사대상이 땅속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물 벽속의 노후 진단이나 누수탐지를 비롯하여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특수부대요원 진입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벽이나 문 뒤쪽 상태의 투시하거나, 공항검색대에서 사람의 옷 속에 은닉된 무기를 투시하여 항공기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탐사레이더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인체 내부 진단용 의료영상화장치와 캡슐형 내시경에도 탐사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하고 싶은 책

당신도 아나키스트이다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이다

제임스 C. 스콧(김준 옮김) | 여름연판 11만5000원

가깝게는 열을 전에 좀 덜 가깝게는 삼백 여년 날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다. 4·16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로부터는 이백 스무 이틀이 된다. 작년 수능 수험생 중에 수학이 좀 모자라지만 국어와 영어에서는 만점이 기대되던 고3 친구 한 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었다. 부모는 수능 시험 며칠 전까지 그 친구가 수능을 내던지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오래 전부터 결심을 굳힌 듯 수능원서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낸 것이다.

나는 그 친구의 대견함을 칭찬하며 부모를 안심시켰었다. 물론 그 친구는 올해도 수능을 치지 않았으며, 부모 곁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 대신 만두집에서 하루 열 시간의 노동으로 홀로서기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참담한 가슴을 쓸어내리지도 못했었다. 지시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복종이라는 사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서귀포 사망모아어린이집 원장님 기록 프로필 명패에는 여전히 ‘실종자 수가 0이 되는 그날까지’ 라고 적혀있다. 희망이 없음에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음이다. 4·16을 잊을 수 없어서 4·16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두고자 나는 카톡 프로필 명패에 한참동안 이런 문구를 올려놓았다. ‘청소년 독립선언, 명령불복종 훈련을 지지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못한다면, 4·16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3이면 누구나 수능을 거쳐 대학에 원서를 내야하고, 종3이면 누구나 연합고사에 한번 목숨 걸어야 하는 천편일률의 질서가 숨겨져 있는 때, 남들보다 1년 혹은 2년 아니 10년 더디더라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보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다면, 4·16 세월호 참사가 드디어 실종자 수 0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학 2학년 때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에-아니오』를 읽었다. ‘에’라고 답해야하는 관습을 깨고 ‘아니오’라고 말한 한 소년의 이야기이다. 『에-아니오』를 떠올리며 제임스 스콧 James C. Scott의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 Two Cheers



For Anarchism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개인적으로 남문서점을 좋아한다. 고등학교 시절 남문사거리 남쪽 언덕에 있던 그 서점이다.

이름이 남문서점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가 제주에 없었지만, 남문서점이 남문사거리를 떠나 지금의 중앙여고 앞으로 옮긴 후에는 더 자주 들러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며칠 전 이 책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야 책을 다 넘기고서 이 글을 쓴다.

아나키스트를 안 아르케 이스트라고 분리시켜 읽어보자 an은 부정 접두어이다. arche는 시조 또는 그로 인한 지배구조, 지배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통고해야 하는 아치형의 대문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ist는 무언가에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어이다. anarchist는 그런 사람이다. 흔히 아나키스트를 무정부주의자로 번역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거슬린다. 제대로 아나키스트를 설명하면, 홀로서기가 훈련된, 홀로서기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민주가 바로 아나키스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주권을 전제한다. 자유로운 주권의 사회적 관계가 민주주의이다. 아나키즘의 전제는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나키스트의 행동원칙이다. 스콧은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나키즘에 대해 어려울지 모른다는 또는 불온할 수도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 차가 이미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서 있는상황에서 굳이 횡단 보도까지 돌아가지 않고 시정앞 대로를 가로질러본 경험이 있다면, 주위를 충분히 둘러보고 자신의 판단으로 신호등을 무시한 채 길을 건너 본 경험이 있다면, 부모의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대들면서 중2병을 앓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아나키스트이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한다.

김준표
사회학과 강사(문학박사)

대학가 소식

釜大新聞

학교 어플리케이션,
일 년째 개선 준비 중?

부산대 어플리케이션 ‘부산대학교 스마트캠퍼스’의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학교 어플리케이션은 잦은 오류와 느린 속도 때문에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보전산원은 지난해 모바일 웹을 개편하며 학교 앱도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본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다. 웅정민(언어정보학과 3)씨는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려면 접속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이 만든 앱 ‘부산대학교 종합 앱 PNUNU’가 오히려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PNUNU는 학교 앱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NUNU를 이용하는 이한솔(해양학과 2)씨는 “속도가 빠르다”고 호평했다.

학교 앱 개편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정보전산원은 기존의 네이티브형 형태를 업데이트와 관리가 용이한 하이브리드형 형태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추가해 모바일 웹과의 차이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대신문

허술한 협약서에 묶인
BTL 난방문제



충남대학교 BTL(7-11동)의 외관

충남대학교 기숙사 BTL관은 난방문제로 시끄럽다. BTL관은 사생 중 89.3%가 난방온도가 적절하지 않음을 호소했다.

BTL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고 일정기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서 상 실내 기준온도는 18도, 온수는 하루 3시간 공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민간업체에 운영비가 지급되어 고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무층 생활관 팀장은 “기준온도를 18도로 설정한 것은 협약 당시의 잘못이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대신문

강제 모의 토익을
거부합니다

전남대 모의토익 시험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리쉬(글로벌영어리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오후 4시 대학 본부 앞에서 진행됐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리쉬를 거부하는 모임’의 정무빈(철학과 14)씨는 “나는 철학을 배우러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모의 토익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며 “지금도 영어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학문의 진리를 목적으로 해야 할 대학이 취업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글로벌영어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글로벌영어리쉬를 거부하는 모임은 “전남대가 토익을 강요하는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다”며 “대학 구조조정은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한다. 즉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토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본부 관계자는 “글로벌영어리쉬는 학생들의 영어실력과 취업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영어리쉬는 모의 토익 형식의 시험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작했다. 대학 졸업요건에 해당하며 미응시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대신문

‘전공선택’ 과목도
전공학생이 우선 선택

충북대는 2학기 수강신청부터 기존의 제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공필수과목만 해당 학과, 해당 학년에게 우선 수강신청권이 있었고, 전공선택 과목에는 없었다. 해당 전공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전공 학생들보다 타 학년이나 타 전공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강신청 제도 변경에 따라 해당 학과 학년 학생들의 우선수강신청권이 전공선택 과목에까지 확대됐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1일 차에서 4일 차까지 다른 학년 전공과목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공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모 학생은 “전과를 생각하고 있어 그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미리 들어놓으려고 했으나 마지막 날만 신청 가능해 수강신청에 거의 실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사와 관계자는 “이같이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되는 사안은 앞으로 수강신청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강좌증설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신문

수강 증원
원하면 다 되나요?

경북대에서는 수강 증원 기준이 없고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증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증원 신청을 제한 없이 받는 강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강꾸러미제도를 통해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원, 분반을 고려하고 있지만 같은 수업의 요일을 나눠 진행하거나 정해진 인원의 배에 달하는 증원을 받아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일별 분반 수업을 진행하는 주영위(국악과) 교수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강취소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그걸 고려해 정원보다 더 받는다”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한 학생은 “인원 제한이 없다보니 강의실 자리가 부족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황의욱(과학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수강권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능처럼 A형, B형의 다른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이준형(통계학과 10)씨는 “학생입장에서는 대강의 수업이 편하고, 증원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지만 대강당에 책상이 없어서 필기하기가 불편하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大學新聞

일반노조, 본부에 정년
연장 및 임금 인상 요구



일반노조가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11월 19일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본부’ 주최로 정년 연장 및 시중노임단가·적용 정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학생도 참여해 본부에 청소·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노조는 결의문에서 “본부는 수개월 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본부 측에 요구한 사항은 △정년 70세 연장 △시중노임단가 적용 △식대비 지급 △경비노동자 대체인력 보장 등이다. 일반노조는 5월 시설노조와 함께 본부에 정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본부는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정리·유주연 기자

인권영화제로 장애인들의 영화(榮華) 누리길

〈 몸이 귀하게 돼 이름이 세상에 빛남 〉

기고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갖는 의미와 장애인의 현실



이 경 현
제주장애인연맹
사무처장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제주인이면 누구나 한눈썹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장애인연맹(DPI)은 생소할 수도 있어 먼저 제주장애인연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권영화제를 소개하려고 한다.

제주장애인연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확보'라는 창립목적을 갖고 1986년 결성된 국제장애인단체다. 당시 장애인권이 전무했던 척박한 사회 환경속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라는 장애인당사자 운동을 펼쳤으며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중심의 운동을 시민과 함께 하고자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한 영화제다.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탄생한 이유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장애인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나 갈망하는 단어였다. 장애인 인권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던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로써 투쟁의 시대였던 90년대를 지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문화의 바람은 제주에서 처음 불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새천년의 열원을 담아 지난 2000년 제주에서 시작했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주제로 영상물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영화제로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다. 또한 이 영화제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제작의 어려움을 딛고 장애인인권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상영의 기회를 잃은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은 영화를 갈망하는가? 왜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볼까? 크리스티앙 메츠는 "연극이나 공연과 달리 영화는 '대중'을 갖고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란 말을 남겼다. 또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현실효과' 때문이란 주장을 했다. 현실효과란 단순한 재현수단이 아닌 새로운 표현수단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며 비현실성을 현실화 하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는 대중에게 하

늘을 나는 슈퍼맨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스타워즈에서처럼 광활한 우주를 항해할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백 투더 퓨처처럼 시·공간을 지나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영화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더 영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영화를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영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장애인인권운동과 장애인인권영화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사회적 현실과 싸움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장애인운동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즉 이 말은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 주장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이러한 시기에 장애인들이 문화향유의 권리 찾기 운동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들의 사회적 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과거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영화 관람이나 영화제작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은 상영관 밖에 걸린 홍보그림이나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전부라고 할 만큼 접근성이 0%에 가까웠다. 또한 영화제작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굳이 따지 않아도 학교 내 접근성, 촬영장비사용의 어려움과 접근 불가능한 촬영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곤 나머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영화제작은 희망이 아닌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어느 곳에서도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제1회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끝나지 않는 싸움-에바다」란 43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에바다라는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사망 사건의 은폐 등을 폭로했다. 이는 TV등의 매체에서도 토막뉴스로 잠시 보도가 되기도 했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영화는 얼마 전 상영돼 법률개정까지 이뤄낸 영화 「도가니」의 전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인권영화는 주변환경,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로 다뤘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



2014년 10월 25일 제주장애인연맹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장애인인권영화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까? 주로 이용되는 소재는 바로 이동권의 문제다. 사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막는 주된 요소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동권이다.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결되어 있어 장애를 신체적 손상을 입은 당사자의 문제로만 보는 잘못된 입장에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제작된 장애인영화의 하루(2002년)는 장애인당사자의 평소 생활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려내어 큰 각광을 받은 작품으로 장애를 신체적 손상을 입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의 문제로 장애가 발생하며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영화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이제 장애인들은 보는 것에서 직접 제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변화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사전제작지원이다.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실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영화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기존 상업영화만을 접했던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독립영화>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꿈과 희망이 결실이 사전제작지원인 셈이다.

2005년 전국 처음으로 사전제작지원을 시작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사전제작지원은 제작비의 일부를 영화제작 전에 지원하여 영화제작의 어려움을 겪는 영상가들에게 영화제작의 꿈을 실현하고 장애인인권영화제에 상영함으로써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현재까지 사전제작지원원을 통해 30여 작품을 지원했고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야기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현실

을 지적인 영화 「아-숨쉬기도 힘들구나(2006년, 사전제작지원)」는 장애 속 장애인, 차별 속에 차별 받는 장애여성의 이중 삼중의 고달픈 굴레 속에서 태아와 함께 가쁜 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미는 장애여성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간밀하게 포착하는 동시에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인 작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권의 문제, 이동권의 문제, 장애여성의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은 복지다 칭하는 틀에 쫓겨 사회와 동정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

2000년 '지자'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우리 영화제에 이제는 해외 10여 개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우리 연맹이 추구하는 어떠한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이념인 사람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권리확보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위즈니악(애플 설립자)의 말처럼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발전시켜도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법을 아는 것 만으로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복지라고 부른다. 노동을 해도, 운동을 해도, 문화행위를 해도 복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내 권리를 챙겨줄 것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제주학아카이브에 『조선왕조실록』 제주 수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 제주관련 기사 1760건을 제주학아카이브에 탑재했다. 이는 제주향토사 연구와 더불어 학생·일반인을 상대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료로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조선왕조실록』 제주기사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朝廷)의 처리내용과 의견 등을 소상히 수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제주 관련 자료는 역사를 이해하는 기록물을 넘어 제주의 정체성을 찾아 제주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승보전을 위한 귀중한 시금식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

아카이브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기록 중 단일 주제나 콘텐츠 관련 자료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 활용도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맞춤 진로설계 정책세미나 24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가 청년 일자리 맞춤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24일 오후 3시 오션스 위트니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는 산업현장과 상급학교 진학의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진로문제를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독일·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는 시행 1년여만에 1700여개 기업이 참여할 만큼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일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업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장기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로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라초대석 〈10〉 안지에 제주MBC 라디오 DJ

“인생의 노래를 스스로 선곡하자”

“굿모닝 FM 제~주 저는 여러분의 아침엔 안지에 입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아침, 학생들은 등굣길의 버스를 잡으려 험레발씩 뛰고 어머니는 풍나락을 헤매는 아가들의 엉덩이를 찰칵찰칵 때리며 하루가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가득한 상쾌한 아침. 이런 그들에게 하루를 열어주는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를 만났다.

매일 아침 8시, 안지에 DJ는 그녀만의 이야기기한 집으로 향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니터 안으로 살포시 날아온다. 'On-Air', 방송을 알리는 강렬한 붉은빛이 켜지면 그녀는 씩 웃으며 아침을 알리는 마이크를 당긴다.

"DJ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꼬마숙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과 함께했어요. 라디오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학교 가는 길에 선곡표를 직접 짜보기도 했죠. 제가 라디오DJ가 됐을 때, 모두가 말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DJ가 될 것 같더라' 하고 말해요! 하하."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안지에씨는 어릴적부터 꿈도 많고 욕심도 많은 소녀였다. 그녀는 다양한 경험을 쌓자는 목표로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 수업 대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동경하는 PD가 진행하는 강연을 듣기 위해 허겁지겁 가방을 싸기도 했다. 누군가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하고 말하는 미인경연 대회 또한 본인 스스로 몇 달을 준비해 참가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녀의 2011년 광운대학교 재학중 참가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절정에 달했다.

이후 방송국 입사를 목표로 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하던 안지에서는 광운영상미디어센터 아나운서직을 시작으로 그녀의 제2부 방송에 막을 활짝 열었다. 제주MBC에서 라디오DJ를 구직한다는

소식에 자신 있게 지원을 했고 2012년 6월, 그녀가 꿈꿔왔던 라디오 DJ의 일을 맡게 됐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세상에!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제주MBC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친구한테 제주도까지 걸어가려면 몇 분이나 걸릴까하고 물어보기도 했더니깐요? 라디오부스에 들어서고 처음으로 진행한 방송은 한 시간이 일분처럼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송이 끝났지 뭐예요."

밝은 그녀의 목소리가 작은 섬에 울려 퍼졌고, 청취자들과의 새로운 이야기 또한 시작됐다. 안지씨에게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 TV리포터, 전국시대 '도요 플러스' MC, 테마여행 길의 MC를 맡는 등 리포터로서의 활동 또한 겸하며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채워나갔다.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때금씩 안지에 DJ를 머느리 삼고 싶다는 아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방송국에 보내는 애청자도 주마마노로 있어 방송국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늘 밝은 모습으로 청취자를 맞이하는 그녀에게도 힘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사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오 방송에 피폐가 갈까봐 티를 내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자'의 고충을 느낀다죠. 그런데 오래된 청취자분들은 제 조그만 변화도 느끼고 무슨일 있느냐, 힘을 내라고 문자를 보내주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마운 마음씨에 다시금 힘을 내곤 해요."

헤드폰을 뚝 놓려온 꼬마숙녀는 어엿한 아가씨가 돼 자신이 꿈꾸던 마법 상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늦잠을 즐기던 학생시절과는 달리 매일 아침이 행복하고 설렌다는 그녀, 안지에 DJ는 오늘도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부스의 불륨을 높인다.

강수빈 기자



안지에 제주 MBC 라디오 DJ가 '굿모닝 FM 제주'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로컬뉴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도민피해 없도록 국내 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 준비만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된 한·중FTA에 대한 국내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협상타결에 따른 각·간접적인 피해부분을 포함해 개방화시대 농업의 체질 개선과 정책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지원대책은 국제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여기에 농업이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해 수립될 예정이다. 주요골자는 △농가 안심장차 강화를 위한 발작불금 확대 △농업수입 보장보전 도입 △해해보전 확대 △안전 농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발작불금이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와 비용절감 △주산지중심의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발기반 확대 △발작불금 체계를 포함한 발작물에 대한 R&D확대 △주산지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 한·중FTA 협상이 발효되기까지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과 가시명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가시명 이후 국회비준동의까지의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제주자치도와 정부측의 전망이다.

지원대책 수립 로드맵은 현재 국제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협상결과에 대한 피해영향 분석 결과와 중앙정부가 검토해 온 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국내대책 초안을 검토한다. 이어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심결과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와 투자계획을 협의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심의를 확정하면 한·중FTA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시 국내대책도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한·중 FTA타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의 한·중 FTA타결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수정하고 사전에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주지역의 대책방안이 정부지원대책에 사전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 FTA협상시 세 번 품목별 양허결과를 양국이 가시명 한 후 공개하기로 국가 간 합의돼 국가 신임도 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발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11대품목에 대한 59개 세 번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양인을 통해 협상결과를 확보 중에 있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해녀박물관 3개월간 전면 휴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이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전면 휴관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제주해녀 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해녀박물관은 박물관내 상설전시장 시설 개선과 어린이 해녀관 등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해녀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공립박물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시장, 로비, 수장고, 영상실 등 박물관 전반에 관해 개선이 이뤄진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도내·외 전시, 해녀, 교육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존 전시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녀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내년 3월부터는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 유일의 해녀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이기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
젊은 생명을 천황의 이름으로
바치도록 한 시스템이
미화되거나 찬미되는 것은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으로
결국 평화를 말할 수 없다

”

“아리랑의 노랫소리로 멀리 어머니 나라를 그리워하며 부서진 꽃, 꽃...”. 이것은 조선인 가미카제 11명을 기리며 지란특공평화화회관 입구에 세워진 돌비석의 글귀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조선인 출신 탁경현 소위도 큐슈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미나미큐슈시의 바로 이 자리에서 1945년 5월 11일 히노마루(일장기) 머리띠를 질끈 매고 이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가미카제 특공대로서 제로센 전투기에 올라탔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미카제란 태평양 전쟁 말기(1944. 10~1945. 6) 제로센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 함대에 돌진하는 자살특공대로서 가고시마 지란비행장에서 출격한 특공대원 1,036명 전원이 오키나와 상공에서 봄철의 사쿠라 꽃 떨어지듯 공중 분해되어 사라졌다. 그야말로 일본인들만이 가능한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전술로서, ‘이기고 돌아오라’가 아니라 ‘죽어서 돌아오라’는 지극히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근대사를 일견해볼 때,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1904년 러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45의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본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승승장구하다가 패

지란특공평화회관의 단상

색이 짙은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교육자책으로 내민 카드가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그런데 바로 이 가미카제 특공대들의 ‘진정을 후세에 똑바로 전하며 세계 항구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한 곳’으로서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지금의 지란특공평화화회관이란단. 말이 회관이지 사실 상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이 가미카제 특공대원들 전원의 사진과 그들이 출격 직전 썼던 유언 및 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출격 전야의 팔씨름〉,〈출격 20분 전의 식사〉,〈이별의 술잔〉,〈일기장에 유서를 쓰는 대원들〉,〈출격 전 강아지와 노는 특공대 소년〉 등등의 사진들이 특별한 눈에 띈다. 이들 사진의 제목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지만, 사진 속의 특공대원들은 모두가 여유만만하고 천진스럽게까지 하고, 단면이 가득 미소를 띠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전시된 특공대원들의 유언장을 보면 한결같이 ‘천황폐하 만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이곳은 지나간 한 시대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텐노헤이가 사요나라 반자이’가 서려 있는 현재진행형의 박물관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변국을 침략했던 군국주의의 망명을 미래로까지 비추고 있는 박물관으로 보인다.

또한 이 특공평화화회를 상징하는 ‘통곡 땀세의 비’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이 진혼 위령과 통곡 속에서 우리의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여기에 맹세한다”라는 메시지가 웅지 무심코 스쳐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 가미카제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개념과는 아무리 해봐도 양립되지 않는다.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차치하고 인간성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가미카제는 특공대원 개인의 평화도 담보할 수 없는 속성이 아니던가. 이 점이 바로 ‘통곡’과 ‘평화’의 어색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지란특공평화화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다. 70여 년 전 겨우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천황의 이름으로 바치도록 한 시스템이 미화되거나 찬미되는 한, 이는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평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인 탁경현 소위가 출격 전날 밤 도리마 부인 모녀와 저녁식사를 하며 불렀다는 “아리랑”이 차라리 더 솔직한 가미카제의 심경이 아니었을까. 출격 전날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뇌리에는 천황 대신에 실제로는 고향 땅의 부모님과 약혼한 애숙이, 여동생 노부고 등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휴머니티 없는 평화란 없다.

선부른 도서정가제 시행에 대한 우려

저렴하게 제공되리라는 기대가 바로 도서정가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도서정가제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도서정가제 시행이 동네서점에 경쟁기반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제한해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 할인을 통한 판매촉진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을 찾는 이유는 할인율이 전부가 아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할인을 한다고 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만을 기다리고 구매하지 않는다.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지만 언젠가 할인을 할 거 같아 그날만 기다리느라 책을 안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용을 살피기 위해 오프라인 서점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할인을 많이 해주기보다는 많은 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등한 가격만으로 경쟁기반을 얻기에는 대형서점이나 동네서점이나 판매하는 책의 종류 등이 엇비슷하며 양적인 면에서는 큰 격차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고 책 서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절판된 책을 구하려는 사람이나, 짧게 쓰고 말 책을 구하는 사람들은 중고 책을 찾지 마련이다.

동네서점 대부분이 중고서적을 제공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중고서적의 거래가 쉽고 품질보증까지 해주는 곳은 인터넷 서점이 대부분이다. 특히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책의 가격이 제값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고서점으로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다. 이는 동네서점의 기반보다는 인터넷 서점의 특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을 접한 사람들 중 몇몇은 ‘서점보다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며 도서정가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낡은 책을 새 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나 새로 나온 서적을 도서관에 추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누구나 책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그런 도서관이 금전 문제로 적은 도서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면 빈부간의 지식격차가 더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역기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서정가제의 개정에는 그런 준비가 없었다. 도서정가제와 사뭇 유사한 ‘단통법’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도입하고 본 것이다. 남은 것은 도서정가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든 부정적으로 작용하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보완하는 길 뿐이다.

미생물의 보고, 곳자왈

동문칼럼



김대신
생물학과 88학번
제주한라산목원
임업연구소

곳자왈은 제주도의 화산활동 결과로 생긴 지역 중 오프로드만큼이나 명확한 존재감을 갖는 곳이다. 그간 곳자왈 지역의 중요성은 지질학적인 특성과 동식물생태계의 독특한 때문에 많은 조명을 받아왔으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통해 ‘제주도 용암 숲 곳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라는 제주도의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됐다.

곳자왈지역은 제주도의 화산활동 이후 긴 세월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부터 지형을 이용한 주거공간이나 수렵활동의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방목, 숲갈래 같은 입입활동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온 제주도만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다.

지금 이 바윗돌 무더기처럼 정제된 듯 한 곳자왈 생태계의 숨겨진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곳자왈의 불모의 환경, 취약한 기반에, 어떻게 호사스런 지금의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을까. 여러 의구심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곳자왈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한 순수한 뜻으로 전국에서 모인 ‘곳자왈미생물연구회’ 연구진들은 곳자왈에서 새로운 속(Genus) 수준 미생물의 한 종류인 ‘베리박터 곳자왈렌시스’(Variibacter gotjawalensis)을 발견, 해외 논문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우리가 학창시절 생물시간에 배운것처럼 속(屬)은 종(種)보다 높고 과(科) 그룹 다음에 오는 계급으로 새로운 종의 발견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곳자왈에서 발견되어 학명에 ‘gotjawalensis’라는 종소명을 붙여 제주도 곳자왈이 이 종의 원산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공명적인 학명에 곳자왈이라는 제주 고유어가 들어가는 자체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학술용어로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또한 곳자왈 토양 속 미생물다양성은 아마존 비옥토양의 하나인 테라프레타(terra preta)만큼 다양하고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비교 분석되어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향후 곳자왈 미생물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된다면, 곳자왈 내부에 숨겨진 미소생태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미생물이 없다면 이 지구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퇴적된 공간일 것이다. 미생물은 지구상의 오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질병 등의 원인이 되지만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유용물질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와 가치가 매우 높은 생물자원의 하나다. 곳자왈 지역에 분포한 많은 미생물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보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보호지역으로의 지정과 같은 보다 확실하고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독자기고

무조건적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써야

이시형
정치외교학과 1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부와 권력이 되물림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쳐 현대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문어발식 기업 성장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복지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은 특정한 계층과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던 부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2007년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기술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든 양질의 공교육을 통해서든 훌륭한 보건서비스에 의해서든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빌 게이츠의 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가 진보되는 과정 중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은 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중세 논란이 뜨겁다. 담배세 인상으로 촉발된 중세 논란이 내년에는 주민세나 교통세 등과 맞물려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 같은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한 필요조치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 결국 담배세 인상은 부족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때에 국민 복지를 위해 중세를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 잠깐의 저항은 있어도 가장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호하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아래 기업체에 주었던 많은 혜택들의 재고이다. 특히 기업체의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대한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면 기업체에 법인세를 인하해도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세를 이야기하면서 기업체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가진 자들을 위한 가진 자들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국회는 세금이 잘 못 쓰이는 곳은 없는지를 잘 관리하고 사회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는 기쁨을

고은경
식품영양학과 1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시간적·장소적 여건으로 인해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 또한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업과 과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알아보면 중 ‘재능기부’라는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재능기부’라는 단어는 연예인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봉사 방법이다.

재능기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워드 입력 봉사’였는데 이 봉사는 말 그대로 워드로 입력한 것을 점자로 바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을 만들어 주는 활동이었다. 워드 입력이라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어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이 봉사는 점자도서관에서 약 1시간의 교육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책 혹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화를 요청한 책을 워드로 옮기는 것이었다. 점자도서 워드 입력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주의사항과 규칙만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 ‘...’를 “6.6.6”으로 바꾼다든지, ‘ff’로 페이지를 넘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언더 친 후에는 무조건 띄어쓰기 두 번을 쓰는 등의 여러 규칙이 있다. 이런 간단한 규칙만 숙지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책을 읽는 와중에 오타를 보더라도 글의 맥락을 통해 글을 이해하고 알맞은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손의 감각을 이용해 점자책을 읽기 때문에 오타나, 맞춤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점자책은 오타가 나면 뜻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자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에는 워드입력봉사 외에도 ‘낭독봉사’가 있다. 이 봉사는 책을 읽고, 녹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에 제약이 많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굳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언젠가 시각장애인 점자나라 소식지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전에서 당선된 독후감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중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길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절 다른 형제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내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네다섯 권의 책이 우편으로 배달돼 오는데 저에게는 그 책들이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점자책과 읽어주는 책에 빠져서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잠시 시간을 내 틈틈히 했을 뿐인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 행복의 크기와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책 한권에 담긴 기쁨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선거구 획정, 제3의 독립기구가 해야

고진혁
토목공학과 2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이 정계특위로 직접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성립돼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구증가분을 고려해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수의 증감문제, 주제와 시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현상) 문제 등 한 국 의회 정치 제도의 바탕이 되는 틀을 다시 짜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해 게리맨더링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추천 2명, 한나라당 추천 4명,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등 현역의원들 범위 안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왔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기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틀을 만드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처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본인들이 직접 지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이 7~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 조사를 실시해 10일 보도된 결과 ‘선거구획정의 주체는 누가 해야 하나’의 질문에 응답자의 44.1%가 제3의 독립적 기구, 36%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4.2%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를 선택했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를 선택하는 경우는 가장 수치가 낮다. 결국 국민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4.2%의 응답자들은 과연 왜 국회를 선

택하는 것일까. 국회에 산하를 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선거구 개편 외 모든 프라이머리 등의 정치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선거구제에 직접 맡아 부작용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비정치인의 선거구제 개편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나 정치 성향을 모르는 개편으로 인한 기계적 배분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더라도 선거관리위원들은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3명씩 임명하므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어서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 산하에 두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것도 모순이 있다. 그렇기에 제3의 전문적인 독립기구가 가장 적합하다.

OECD 국가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밖에 없다. 대개 OECD 국가는 제3의 독립기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이다. 물론 외국의 사례는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구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 나라들의 독립기구 선택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3의 독립기구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이건 독립기구이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독립적 의사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 입장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해야 한다.

변화하는 수업시간의 모습

판서대신 PPT, 필기대신 스마트폰

빨강, 파랑, 노랑 가지각색의 펜으로 공책에 필기를 하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업시간 교수님의 판서를 정신없이 받아 적던 학생들의 모습이 이제 좀처럼 찾기 어려워졌다. 가루 날리던 녹색 칠판 대신 화이트 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한 지는 오래됐다. 이러한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도 모두 변했다. 교수도 칠판에 판서를 하며 수업하기 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업하는 등 더 이상 수업시간 풍경들이 예전 같지 않다. 교수가 칠판에 수업 내용을 판서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빠르게 필기하는 모습은 이제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

◇변화하는 강의실 풍경

우선, 수업을 하는 교수들의 강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학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탐구하고 교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토론 등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수업이 많이 생겨났다. 또한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도 많다. 이제는 혼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협신해 공부를 하고 자신의 발표 및 자료에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수업 형태가 많아졌다.

이주영 (인문홍보학과 3)씨는 “앉아서 강의를 받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직접 우리가 준비한 발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니 더 책임감이 들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교수의 수업이 전혀 없이 학생들의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교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의 수업을 듣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의 형태뿐만 아니라 교수의 강의 진행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칠판에 강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나 한글 파일을 띄워 그것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또 그런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하영Dreamy’에 올려 학생들이 쉽게 강의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 수업 시간 종일 판 것을 하다가 교수가 올린 수업 자료를 통해서 쉽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해 시험 및 평가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강의실 풍경은 분필 가루를 휘날리며 수업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나무로 된 교탁 대신 전자교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에는 이러한 강의 진행 방식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달라진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강의 방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달라졌다. 불과 몇 년 전, 학생들은 교수의 수업을 따라잡기에 바빴다. 교수의 수업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가지각색의 펜으로 알록달록 필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시간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필기하지 않게 됐다. 학생들은 필기를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교수님의 판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촬영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송민경 (회계학과 3)씨는 “교수님의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르는데 수업 자료를 따로 올려주지 않아서 필기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엔 너무 벅차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도 있다”며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수업에 방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필기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고 말했다.

강의실 풍경을 변화시킨 데에는 스마트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세라 귀를 쫓종 세우며 펜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이와 펜 대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필기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들도 많다.

스마트폰은 이제 만인의 것으로 자리매김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두꺼운 사전과 여러 책들보다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도중 정보를 검색할 때에 교수들도 적극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검색해보는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업 내용을 촬영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린 스마트폰은 강의실 풍경마저 바꿔 버렸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많은 전자기기가 많이 보급됐다. 그로 인해 우리의 수업시간 모습은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수업 내용을 필기한 공책을 서로 빌려가던 모습보다 수업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는 모습이 더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강의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 또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 미리 ‘수업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 일절 금지’를 공지 하는 교수도 생

겨났다.

박준영 (간호학과 3)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거나 최대한 촬영 소리가 나지 않게 수업 내용을 촬영하지 않고 너무 대놓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수업 중 스마트폰에서 알람이나 벨소리, 게임 소리가 울려 강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교수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생의 효과적인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와 학생 모두의 의견이다. 우리네 삶에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분명 명과 암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

교수의 강의 방식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모습들도 존재한다. 아직도 제주대 내에는 분필과 칠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열심히 판서를 하는 교수님도 있다. 또한 아직도 귀를 기울이며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여전히 수업시간에 교수 몰래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다. 교수의 출석 점검에 재빠르게 대답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다. 수업 시간 내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판 것을 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강의실 풍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단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찾고, 정보를 검색하며 열심히 판 것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한다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11월21일부터 3일간 칠성로 옛 코리아극장에서 제5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투르 드 프랑스(Un Tour de France)’를 주제로 프랑스의 각 지방 고유의 문화와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 시작을 알리는 <킬리만자로의 눈>

첫째날 개막식 전부터 영화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개막 전에는 프랑스 유학설명회가 열렸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교육진흥원에서 유학 자격과 혜택, 경험담 등을 설명했다. 이후 거리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퍼레이드에는 다국적 예술단체인 ‘살 거스’, 제주대학생으로 구성된 관악4중주단, 아코디언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영화제를 즐기는 관객들이 한데 어울려 행진을 했다. 개막 시작 10분전 이미 300여 석의 좌석은 프랑스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개막작 상영 전 고영림 집행위원장과 다니엘 까펠리앙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상교류담당관, 집행위원들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와 함께 영화 <킬리만자로의 눈>이 상영됐다. 한국 미개봉작인 이 작품은 항구노동자들의 노조와 해고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주인공을 강도한 범인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요구한 개막작이었다.

△ 모두가 즐기는 영화제

이튿날에는 4편의 영화 상영과 시음회·시식회, 상송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비기닝>, <니스의 브리스>, <용감한 자에게 안식은 없다>, <르누아르>이다. 한국 미개봉작인 <니스의 브리스>는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코미디언 ‘장 뤼카르망’이 주연으로 출연해 웃긴 코미디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씨네토크를 진행한 <용감한 자에게 안식은 없다>는 죽음과 삶 그리고 꿈과 현실을 여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술적으로는 웨스턴, 느와르, 코믹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된 형식이다. <르누아르>는 유명한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를 다룬 영화이다. 그의 말년을 그린 이

영화는 전쟁과 사랑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날 있었던 설명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상담부스를 운영했다. 학생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일대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와 전공을 말하면 상담원이 그에 맞는 특성화 대학을 소개했다. 상송콘서트에는 ‘No Poem’ 기타 2인조 밴드와 ‘미션 레나타 쿼터’ 4인조 상송 밴드의 무대가 있었다.

△ Au Revoir!

마지막 날에도 프랑스영화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상영관은 가득찼다. 영화관에서는 장편영화 4편과 단편영화 6편이 상영되고 로비에서는 크레페와 뱅쇼 시식회가 열렸다.

단편 영화를 프로그래밍한 세바스티앙 시몽은 “6편의 작품 모두 좋아하지만 그 중에 <비어있는 대각선>과 <보튀크>가 가장 인상적이다”고 했다. 그는 “<비어있는 대각선>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보고 영화의 유머가 너무 좋아 꼭 상영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보튀크>는 가장 간단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나에게 강렬한 여운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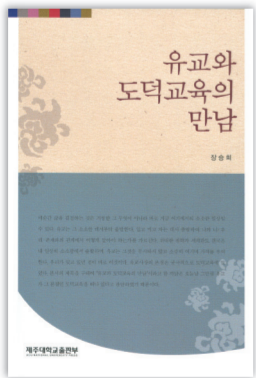
폐막영화 <타인의 향기> 상영 전에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폐회사 가 있었다. 고 위원장은 폐회인사에서 “이 영화제를 만든 이유는 제주지역 문화다양성을 위한 것이고, 제주원도심의 문화재생을 위한 것이다”며 “원도심의 파괴와 소외로 고향에서조차 고향을 잃어버린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됐으며 앞으로도 나아가 갈 것이다”고 말했다.

3일간의 영화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000명 이상의 관람객(추치 측 추산)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은 소외된 제주 원도심에서 중장년과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고 위원장의 취지와 매우 부합한 축제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감독과 배우 직접적인 영화 관계자 초청 문제 등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다.

전지민 기자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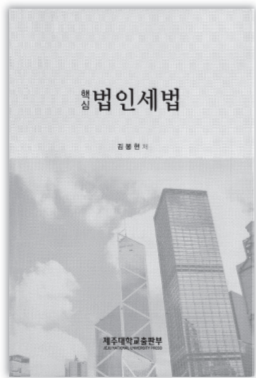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

장승희 지음 | 477페이지 | 23,000원 |

매순간 삶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소소한 일상일 수 있다. 입고 먹고 자는 데서 출발하여 나와 너·우리·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은 유교사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도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유교의 현재성을 찾고 그 도덕교육적 의미를 탐색한다. 유교의 도덕교육적 위상을 점검하고 다른 영역들과의 통섭을 추구한 연구들을 정리했다.



핵심 법인세법

김봉현 저 | 228페이지 | 15,000원 |

법인이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실무에 대해 필수 세부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의 세부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핵심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었고, 법인세법의 개론적 내용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인세실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강의

수정 증보판 | 김현수 저 | 517페이지 | 20,000원 |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과 재판 및 형 집행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의 일정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강의』는 판례의 동향과 학설의 흐름, 그리고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 형사소송법 교재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쉬우면서도 능률적이고, 특히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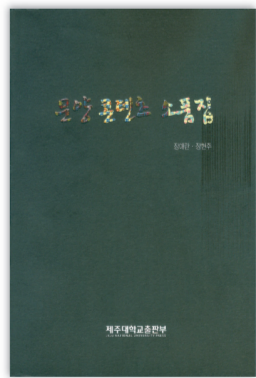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개정·증보판 | 김항미·손영수 공저 | 387페이지 | 20,000원 |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의학내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생명 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환자·의사·사회Ⅲ 과목의 강의 주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의료윤리의 원리부터 설명의무의 범위, 인간생체실험, 의료법리 사례평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

장예란·장현주 지음 | 98페이지 | 12,000원 |

최근 전통문화원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독특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고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신화야 말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은 제주신화, 제주이미지, 문자도 문화원형을 응용한 문양 콘텐츠 소품집이다.